

큰빛은혜교회 가정예배지

2025. 8. 27.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양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2절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3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창세기 25장 5~17절

다 같이

5.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6.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7. 아브라함의 향년이 백칠십오 세라

8.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9.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헛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10. 이것은 아브라함이 헛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11.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해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12.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13.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웃이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앓브엘과 밍삼과
14. 미스마와 두마와 맛사와
15. 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16.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도자들이었더라
17. 이스마엘은 향년이 백삼십칠 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말씀 나눔 -----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 인 도 자

창세기 25장은 많은 인간의 출생과 더불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과 그의 서자 이스마엘의 죽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 이래 무수한 사람이 태어났으나 이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깊은 생각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에게도 다가올 그 죽음을 맞이할 준비도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본문은 죽음을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우리의 가정과 개인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열조에게로

먼저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죽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7-8절 “7아브라함의 향년이 백칠십오 세라 8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여기서 ‘열조(열조, 암)’는 문자적으로는 ‘결합하다(יָדַם, 아담)’에서 유래하여 단순히 동질성을 갖는 ‘무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질성을 갖는 무리는 같은 신앙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일차적으로는 이미 죽은 조상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뜻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혈육적인 조상은 메소포타미아에 장사되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묻혔기 때문에 죽은 조상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은 땅을 기반으로 살았던 시대상으로 볼 때에도 오히려 맞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열조'는 동일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거지 나сар로는 죽어서 천사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스마엘이 죽었을 때에도 성경에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들도 동일한 신앙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본문 17절 "이스마엘은 향년이 백삼십칠 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러므로 사람은 죽게 되면 자신이 사랑했었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땅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함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지냈지만 우리와 다른 종교를 믿었다면 그들은 그들이 믿었던 우상과 함께 지옥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열조에게로 돌아가도록 전도에 힘쓰는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돌아가매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돌아가다'(ἔρχομαι, 아사프)란 말은 '모으다', '거두다', '소집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을 부여받았고 하나님에 의하여 거두어들이음을 당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농부가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것에서도 사용된다는 점에서 명백합니다.

출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이니라"
여기에서 '거둔다'는 뜻과 '돌아가매' 라는 뜻은 같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즉 거두워짐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뿌려 놓으신 이유를 깨달아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과거의 모든 사람이 열조에게로 돌아갔듯이 우리 역시 장차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런 필연적 사실을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비록 고난이 따르다 할지라도 신앙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길을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눔

다같이

1. 아브라함조차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는데, 나는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평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2. 성경은 죽음을 "열조에게로 돌아간다"고 표현합니다. 나에게 있어 '죽음 이후에 돌아간다'는 표현은 어떤 위로와 소망을 주나요?
3.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감이라면,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중보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같이

1.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2. 갈등과 분열이 아닌 하나 됨을 이루는 나라가 되도록
3. 다음 세대가 복음 위에 굳게 서도록
4. 한국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5. 한국이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나라로 계속 쓰임받도록

마무리 기도

다같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결국 주님께로 돌아감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 있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씨앗처럼 뿌려 주셨음을 기억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함께 믿음 안에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